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열네번째 나눔지 20230514

[5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경배 찬양

행복

선교

[김민구 선교사]

1.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2.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후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랴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랴

일본

1. 성도분들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2.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도록
3. 코람데오 전도회 통해 영혼들이 돌아오고 선교사들에게 은혜 있도록
4. 가정이 사역을 잘 감당하며,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성장하도록

2023 오렌지 투어



우.목.소

우리 목장을 소개합니다 / 목장 사진 컨테스트 안내

1. 목장 모임에서 목자와 목원들이 상의하여, 재미 / 의미 / 감동 / 참신함 등등이 담긴 사진을 찍을 계획을 합니다.
2. 계획에 따라 사진을 찍고, 간단한 목장 소개와 사진의 의도, 의미 등을 준비합니다. 사진 제출은 매 주 목요일 낮 12에 마감합니다. 5월 첫주는 우.목소.회의 시간으로 보내주시고, 첫번째 사진 마감은 5월 11일 목요일 낮 12시입니다.
3. 목자는 준비된 사진과 내용들을, 마을장에게 전달하고, 마을장은 김성연 목사와 각 지역장에게 함께 전달합니다. (김성연 목사: 010-2527-5063)
ex) 더은혜지역 10-5 목장 사진과 내용을 목자이신 최혁종 집사님이 마을장이신 조성봉 집사님께 전달해주시고, 조성봉 집사님께서 김성연 목사와 지역장이신 김종설 장로에게 함께 전달해주세요.
4. 전달된 사진과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성도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에 규알코드로 안내됩니다.
5.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한 목장에게, 20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증정합니다. (외식 상품권은 지정된 식당에서만 사용 가능)
6. 5월 한 달간 매 주 진행이 되며, 첫번째 시상은 5월 14일 주일이고, 마지막 시상은 6월 4일 주일입니다.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민수기 32장 2절)

‘하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자기 스스로 이를 수 없는
대안적인 사회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이다.’

- 스탠리 하우어워스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 제) -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생활이나 행동 또는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 정도로 설명하고 있지요.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 가지의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가족이고, 둘째는 교회이지요.

하나님께서서는 가족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 공동체를 통해, 인류는 서로를 사랑하고 ‘너는 곧 나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살아가도록 부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요. 신약 시대로 이어지면서, 예수님께서서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공동체’로서만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원함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를 세워가며 사랑하는 삶, 그 삶을 위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다시금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1_버려야 할 것 - ‘나의 이기심’

하나님께서서는 요단강 서편 지역을 약속의 땅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요단 동편의 땅을 보며 목축하기에 매우 비옥한 땅임을 확인하였지요. 마침내 그들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5절)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약속의 땅 밖이어도, 눈에 보기 좋으면 살아가고자 하는 뿌리 깊은 이기심이 있습니다.

[생각]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든 약속을 알면서도,
요단 동편의 땅을 구했던 속마음은 무엇이였을까요?

2_붙잡아야 할 것 - ‘공동체의 목적’

모세는 처음에는 이들의 요구를 완강히 거절합니다.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어린 아이들은 동편에 두고, 끝까지 전쟁에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요단 서편에서의 모든 전쟁의 자리에서 끝까지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는 때로 ‘공동체의 존재 이유’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온누리 공동체’로 부르심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더 예수님처럼]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도록 하심에 있습니다.

[나눔] 오늘 우리를 1) ‘더온누리 공동체’로 부르신 목적
2) 한 목적으로 부르신 목적
무엇일까요? 각자의 표현으로 나누어 봅시다.

3_바라보아야 할 것 - ‘내 지체의 필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이 있고자 하는 ‘동편’을 내려놓고 ‘서편’의 전쟁의 자리에 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첫 동기는 ‘가데스바네아의 실패’를 다시 한 번 떠올릴 만큼, 위험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공동체원들이 임해야 할 전쟁에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지요. 이는 곧, ‘아직 땅을 받지 못한 내 지체의 필요’를 바라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눔] 더온누리교회는 _____ 공동체가 되길 바라요
=>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적어보고, 나누어봅시다.

[나눔] 오늘 ‘나의 동편’을 내려놓고, ‘내 지체의 서편’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나요? 마음에 느껴지는 다른 이들의 [필요]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전] “기독교인이 되려면 꼭 공동체에 속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무엇인가요?